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19. 10. 14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김상수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김은진 ·☎ (044) 201-4244, 4255, 4257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에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*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.10.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.

*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감지모드에서는 통과(PASS)와 미 통과(FAIL)로 표출되고,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(%)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임

○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.

○ 또한, 이 건과 관련하여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,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 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여 대상자

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YTN, 10.11.) >

◈ 음주감지 무시하고 '비행'...기록조작 시도까지 - 음주반응이 나왔는데도, 정밀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 - 비행 후 정밀측정을 한 후 비행 전에 정밀 측정한 것처럼 시간 조작 시도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